

영적전쟁과 중보기도 사역

97 OMC 주제강의-8

3년 동안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실전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치고 이런 경험을 안한 교회가 없을 거예요. 영적 전쟁, 성령 사역, 기도 사역, 이 분야가 있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뭉쳐서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의해주신 교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탄의 조종을 당하고 세상에 의해서 약화되어 있지만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흠을 수 없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의 힘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배와 바다로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바다 위에 있는 배와 같다.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흔들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배의 위기는 무엇인가? 물이 배안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럼 배는 가라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이 배안에 들어오지 않게만 한다면 어떤 풍랑에서도 배는 튼튼하게, 안전하게 항해를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요즘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교회는 산으로 가고 절은 세상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요즘 절들이 도시에 우리들처럼 집 빌려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는 세상을 버리면 안됩니다. 세상을 떠나서도 안돼요. 죄 많은 이 세상,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사탄이 득실거리는 바벨론 같은 음녀가 가득한 이 세상 한 복판에 들어와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특권 중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용기가 생기더라구요. 교회가 어지러워요, 시끄러워요. 이상한 사람들이 난리를 쳐요. 썩떡거려요. 패를 만들어요. 교회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괜히 화를 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꼭 화를 내잖아요. 마귀는 먼저 알거든요. 은혜 받을 줄 알고 미리 와서 탁탁 두들기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까?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정말 음부의 권세가 다 물러갑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산에서 기도하던 한 시절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삼각산에 있는 어느 한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때는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 문제가 참 많았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그 기도원의 한복판에서, 제단 밑 마루바닥에서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밤 1시쯤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기도원의 앞에, 눈에 너무나 선해요. 크지도 않아요. 귀신들이, 숫자를 셀 수 없는 새까만 우리들이 참 비슷한 것을 들고 눈이 반짝 반짝하는 것 같았는데 자글자글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거예요. 그 기도원 안으로 들어오더라구요. 그렇게 안개가 오듯이 말이죠, 이 어두움의 세력들이 우리 기도하는곳으로 방해하러 들어오는 거였어요. 짝 들어오는데 저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너무 놀라서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지르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방언이 터졌어요. 마구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그런데 친구들은 왜 그런지 모르죠. 아 그런데도 안 물러나요. 창문으로 들어오고 문으로 들어오고 이 성전 안으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짝 들어오는데 그 때 저희들이 기도하는 데까지 오더라구요. 그 세력들이 점령을 하더라구요.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가자, 졌다 그러더라구요. 그러더니 빠지는데 올 때는 점점 점진적으로 왔는데 갈 때는 썰물 빠지듯이 짝 가버리더라구요. 산으로 그 무서운 세력들이 다 빠지는데 그러고나니까

후~ 찬송이 내 몸 속으로 들어오고 기도가 들어오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때 그 하나의 경험이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교회라고 마귀가 안들어오냐, 천만의 말씀! 교회도 기도 안하면 마구잡이로 들어와서 흔들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머리 밑에다 놓고 자면 귀신이 안 와요? 그거 상관없어요. 목사라고 안 와요? 상관없어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면 마귀가 안 와요? 더 잘 오지요. 평신도보다 열 배 더 오지요. 여러분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마귀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보다 한 수 앞서있어요. 교회가 은혜 받으려면 미리 와서 진을 치는 거예요. 마귀는 베드로를 찾았어요. 베드로를 얼마나 선동한 줄 아세요? 그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지요. 마귀가 나를 밀 까부르듯 까붙었다. 결국은 베드로를 쓸 수 없었어요. 베드로는 거의 넘어갈 뻔 했지요. 마귀가 선택한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이게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시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영역을 공격합니다, 첫 째는 가정입니다. 이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그 부부 사이에 앙금이 생기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불륜을 만들어 주고 상처를 주고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든지 부부가 일단 헤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기억 모두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부부간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교회를 깨는 거예요. 일단 교회가 깨지면 제일 마귀가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들이예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니예요. 거기에 마귀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상처받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없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있어요? 없어요. 교리적인 이유 있어요? 아니예요. 다 시시한 감정싸움이예요. 자존심 싸움이구요. 말은 거창하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니까. 그 차이에요. 그냥 교회가 갈라지면 교인들은 유리방향해요. 목사, 장로 싸우는 걸 보고 교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멀리 떠나가기 시작해요. 영적인 방향처럼 큰 방향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싸우지 말고 조용히 떠나세요. 하나님이 해결해요. 여러분이 주도권 잡지 마세요. 여러분이 싸우는 동안 교인들은 말할 수 없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비겁해서 떠나는 게 아니예요. 장로님 이건 목사님이건 싸움에 개입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부부를 이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는 이혼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아주 가장 큰 전략은 교회를 깨 버리는 거예요. 상처 줘서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목회자로서 주님의 교회를 양육할 때, 이런 말을 기억해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목자 하나가 상처받고 흩어지면 양들은 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지도자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공의를 요구하지 마세요. 왜 싸우냐? 공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예요. 공의가 틀린 게 아니예요. 내가 공의롭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공의가 완전하지 못한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은 공의가 아니예요. 사랑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공의가 이루어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교회 본질이지, 공의를 부르짖는 게 교회 본질이 아니예요. 공의는 언제 오는가? 사랑할 때만 공의가 완성 돼요. 용서할 때만 공의가 완성이 돼요. 부정을 덮어 주라는 뜻이 아니예요. 잘못을 덮어 주라는 뜻이 아니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관용해야돼요. 교회에서 그것을 보아야 돼요. 이 때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요. 말씀을 전하면 떠나요. 마귀 쫓는 방법 간단해요. 그러나 마귀가 궁극적으로 떠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면하노니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나갔다 또 들어오는 걸. 여러분 귀신 많이 쫓아봤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귀신을 얼마나 많이 쫓아봤는지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쥐구멍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귀신 쫓지 말고. 제가 결혼해서 얻은 곳이 어느 셋방집 이었는데요, 밤마다 쥐가 올림픽을 해요. 천장에서. 그것도 신혼인데. 그래서 자다가 견디다 못해서 빗자루로 천정을 탁 친다구요. 그러면, 십분 있으면 또 와글와글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걸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회하지 말라구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요? 쥐가 천정에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구요. 그걸 막으면 되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일곱 귀신이 오는 걸. 그걸 어떡하시겠어요? 매일 들어와라 나가라 하시겠어요? 아니예요. 본질을 해결해야 되요. 교회가 기록하고 순결해야 되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요. 똥이 있는 데는 파리가 있기 마련이예요. 파리 쫓지 말고 똥 치워요? 똥 치워요. 그럼 간단한 거예요. 방을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벌레가 못 들어온다구요. 벌레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겸손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와도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헌신하라 깨어라 너희 믿음이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 가운데 깨어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근신하라 경계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알지요? 마귀는 대적하라. 파수꾼. 이게 제가 가끔 생각하면 여호와와 증인이 좋은 말 다 골라 썼더라구요. 파수대, 깨어라, 그래서 또 우리는 안쓰구요. 여호와 증인 된 줄 알고. 그건 우리꺼예요. 여호와와 증인 것이 아니라 우리꺼예요. 깨어야 합니다. 목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들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게 목자의 역할이예요. 목자가 졸거나 외출하면 안되요. 우리는 양 떼들을 보호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결론이 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이것은 끝난 거예요. 한 다섯 가지 사실들을 여러분이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연약한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는 울며 통곡하며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이미 가진 그런 곳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았다. 머리를 찍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도 사탄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예요. 저는 저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당신에게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주고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상담할 때, 저 분이 무슨 얘기를 해오면 제가 그 사람한테 무슨 대답을 할 지 금방 알죠. 성경 읽어주면 딱 좋죠. 그런데 안주죠. 웃기만 하죠. 그럼 막 얘기를 합니다. “어떡하면 좋죠?” 쉽게 대답을 안 줘요. 왜요? 대답은 누가 알고 있으니깐.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대답할 때까지 유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그 사람이 합니다. “맞아요. 당신 입으로 말했네?”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내가 가르쳐주면 항상 나한테 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입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또 나한테 오는 것입니다. 평생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당신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인들이 스스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들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의 세력을 무찌를 수 있는 영적 권위가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세번째,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오른 손을 붙들여 줄 것이며 나의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끝이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약할 때,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우리가 너무 고통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회에 먼저 이런 선언을 하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건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십시오. 주님의 재림으로 사탄은 완전히 패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마귀는 패배했지만 다 끝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완성되었다면 믿음이 뭐 필요하겠어요? 다 완성되었지만 아직 주님의 재림 때까지 마귀는 제한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는 침몰할 수밖에, 이 믿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 주로 오실 때, 역사가 완성될 때, 사탄은 완전히 끝난다. 온누리와 한동대학이 약 2년 동안 참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온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인들한테 블랙메일을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전국에 만 통을 보내고 안기부, 감사원, 교육부, 검찰 안 보낸 데가 없어요. 그 중에 제가 마약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도 겪는 거예요. 여러분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그런 일에 말려들고 두려워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목회하는데 계속해서 파도처럼 부딪힐거예요. 파도가 폭풍은 나쁜 게 아니에요. 고생스럽지만 배는 빨리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더 잘 보여요. 더 성숙해지고 더 마음이 커지고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는거예요.

다섯 번째,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마귀를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덮칠지라도, 그리고 마귀한테 약점 잡히지 마십시오. 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 집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몇 번 집회를 해요. 일단 성령 사역이 시작이 되니까 성령 사역을 선포하면 귀신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신병자들이 많이 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희 교회두요, 한 2년 동안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아주 힘들게 해요.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요. 그러면 다 없어요. 성령 사역을 하고나니까 영적 전쟁 집회를 해야겠더라구요. 교인들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가르쳤어요. 저희는 6월 달에 성령 집회를 했고 가을 9월에 영적 전쟁 집회를 1년에 한 번씩 꼭 했습니다. 주제는 사탄의 세력을,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담대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승리를 개선을 부르는 동안 만드는 삼일동안의 집회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집회 중에 가족관계회복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자신과의 관계 회복, 치유 집회입니다. 회복하는 집회. 또 성령 집회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냥 부흥회해서 부흥 강사 모셔놓고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별로 이익이 없습니다. 부흥 강사 중에 제일 좋은 부흥강사를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다른 분 와봐야 자기보다 잘 해도 문제고 못 해도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세요? 그냥 금식하고 하세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부흥 강사를 했습니다. 금식하고 했어요. 금식하면 왜 좋은 줄 아세요? 일단 불쌍히 여기거든요. 실력 없으면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설교 듣기 이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요. 그렇게라도 자기 교인을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부모가 주는 밥이 제일 좋지요. 호텔에서 먹는 밥이 뭐 좋나요? 호텔에서 먹어보세요. 열흘 먹으면 질린다구요. 그냥 집에서 찬 밥 말아가지고 멀치 볶아 먹는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 강사가 되세요. 여러분이 부흥 강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교인을 제일 잘 알아요. ‘에이! 우리 교인이 내 설교 맨날 듣는데...’ 뭐 맨날 듣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듣지. 그리고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제 별로 그렇게 던져줄 필요가 있어요. 강해 설교하는 교회는. 마태복음 가지고 5년, 4년 이렇게 하니깐....로마서는 2년 정도 하니깐. 그런데 다양한 주제가 필요해

요.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는 늘 데니스 레인 목사님 모시고 하잖아요? 부활절 집회하구요,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하구요, 크리스마스는 우리는 행사 중심으로 안가요. 전도 집회를 해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하나 전해주는 것이 주님 제일 기쁘게 해주는 거지, 뭐 행사 해봤자 뭐 어찌자는 거예요? 헨델의 메시야 해서 뭐 어찌자는 거예요? 돈만 들고 고생만 하고. 한 사람 전도하는 게 낫다구요. 크리스마스 때는 전도 집회, 부활절에는 새 생명, 그것도 전도 집회. 6월 오순절 기간에는 그것도 성령 집회...9월에 영적 전쟁 집회, 관계 회복 집회, 여러분 교회 부흥회 때 대게 보면요, 본 교인은 안 오고 외부 교인들이 와서 얻어먹고 갑니다. 여러분의 교인을 관리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 집회에 영적 전쟁과 성령 사역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므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 중에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을 교회 직분자 세우면 안되요. 사고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래 나오면 뭘 시켜요. 현금 많이 하면 시킨다구요. 그럴지 않아요. 교회는 영적인 조직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다 자기 뜻대로 한다구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갈려다가 그것이 안 되면 신경질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이해를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교회는 이 성령님을 강조해야 되요. 그런데 성령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사역을 잘 못하면 성령 운동이 되요. 운동이 아니라구요, 이것은 성령님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예요. 모든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이것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성령 사역 했더니 성령 사역 프로그램이 뭐냐고 묻더라구요. 없어요. 성령 사역 프로그램 없단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 때까지 내가 결정하다가 지금은 누가 결정하도록? 성령님이 결정하도록 하는 마음의 태도일 뿐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성령님이 찬양하도록 내 마음을 거기에 드리는데 거예요. 성령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목회에 그분이 개입하고 그분이 움직이고 그 분이 인도하도록. 회의할 때도, 이 결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결정인가? 그렇다고 자, 지금부터 성령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라구요. 나의 태도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3차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말한 것을 여러분이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은 잘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열심히 주장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예요. 성령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한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 식으로 믿고 있을 뿐이지. 어떤 신앙의 이름으로 믿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 성경에 있는 것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을 믿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예언 믿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방서 난 몰라요. 성경에 없으니까. 방언으로 글 쓰는 게 있는지...있다 그래도 난 안 믿어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 가는 것만큼 가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말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해되건 안 되건 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다 믿으세요. 다 인정하세요. 귀신이 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나는 5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뿐이에요. 저는 오순절 사건. 우리 주변에 극단적인 성령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론도 어느 모처에 가면 성경보다 귀신을 더 잘 압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다르게 비판하지 않아요. 성경을 지나쳤다는 거예요. 토착적인 귀신론까지 다 끌고 왔거든요. 즉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성령 사역을 목회의 본질적 사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분을 앞세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 분께 리더십을 드리고 그 분께 모든 것을 의지해 보십시오. 망하는 것 같으나 안 망합니다. 교회 쫓겨날 것 같으나 안 쫓겨 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분께 맡기세요. 제가 몸이 나빠져서 연예인 교회에 사표를 쓰고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영국으로 가려고 할 때에 (저희 멘토가 한경직 목사님이셨는데) 제 아내랑 같이 갔

어요. 그 분이 저에게 아주 간단하지만 좋은 충고를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프린스턴에 있을 때 폐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때 피를 토하면서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던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영락 교회를 목회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북한에서 피난나온지 알았으면 안했습니다. 잠깐 한 달만 피신하자고 했던 것이 영영히 돌아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런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연예인 교회를 사임해야 될 무렵에 그 교회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교회를 떠나는 두 가지 조건. 교인이 만장일치해서 가십시오 하면 가래요. 두 번째 목회할 건강이 없으면 떠나라 그래서 저를 보고 연예인 교회를 떠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했더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빈 손으로 가라고 해요. 기대하지도 말고 가래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 어디를 보장받고 떠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 보장이 없고 누가 나를 부르는데도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죠. 내가 계산하고 사람 만나서 다 작업해 놓고 뒷거래 해놓고 가는 것이 무슨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임재와 기쁨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을 강사로 모셔요. 아무리 유명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강사로 모시지 마세요. 손해만 끼칩니다. 영적인 손해만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고 심령이 깨끗하면 강사로,, 감사 선택의 원칙!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되요. 사심이 없어야 되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하시면 되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에서는 키스인터레이더 목사님을 일년, 또는 이년에 한 번씩 초대를 해요. 그분은 오시면 무슨 설교를 부탁했든지 결론은 성령으로 가시더라고요. 그게 참 좋아요. 저는 이 집단 중에, 회중에 성령의 기쁨 부으시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해요. 하는데 한참 통성 기도를 하는데 한순간에 그레이드 업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회중 속에 바람을 확 불어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확 트여요. 사람들이 막 생기가 돌고 기도가 살아 있고 움직이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설교를 사모하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를 사모하세요. 육신적인 기도는 밤낮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피곤하구요, 거기가 거긴 것 같은데 매일 되는 게 하나도 없대구요. 아멘, 할렐루야 소리 크다고 성령님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한 성령님의 기쁨부으심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예배에 흘러넘치고 설교에 흘러넘치고 심령에 흘러넘치고 그래서 조용히 우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안으로 자꾸 흐르는 걸 경험해야 되요. 눈물을 흘리면 씻어져요. 전 예수 처음 믿을 때 사람에게 그렇게 콧물이 많다는 걸 몰랐어요. 나와도 나와도 끝이 없는 거예요. 눈물, 콧물 다 빠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운 사람은 얼굴이 순해 보여요. 울고 나니까. 독기가 좀 빠져야 돼요. 우리 목사들 얼굴에 독기가 좀 많아요. 하도 힘이 들어서 그걸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상처가 많고 고통이 많고 말 못할 사정이 많아서 얼굴이 다 굳었다구요. 어린이 같이 그런 얼굴들이 참 없어요. 심각해요. 우리들의 얼굴들은 돌부처 같고...

성령 사역에 기억해야 될 다섯 가지, 영적 지도자들이 성령의 기쁨부으심을 사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은 밑에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고 웃 사람들은 성령 충만 안 한 것이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제가 안식년 다음에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면 안식년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생깁니다. 좋은 사건. 성령 집회를 선포했어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못 이룬 게 하나 있어요. 교인들이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교인들은 한 걸음 앞선거예요. 성령 집회 할 때 왜 그렇게 많이들 왔겠어요. 교인들이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바짝 늦더라고요. 왜 우리는 신학이 있어서. 교인들은 성경을 보구요, 목사님은 신학 책을 봐요. 그거 아세요? 신학 책 가끔 보세요. 그리고 설교에 절대 신학적 용어 쓰지 마세요. 장로님들이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연륜과 상관없어요. 유명한 것과 상관없어요. 천천히

받으세요. 엎드리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 외에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PHD는 참 곤란합니다. PHD 받아서 손해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내가 박사인데, 박사가 이런 글을 써? 글도 못 써요. 말도 함부로 못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십시오. 내 안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릎을 꿇으세요. 기름부음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세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넘칠 때, 교회는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위장된 사탄의 영이 발견됩니다. 숨어 있는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사모하십시오. 영적 분별력이 생길 때 굉장히 당황하고 곤란한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라야 할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안 시킬 일을 안 시켜야 되요. 왜?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깐.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손대는 것마다 다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을 맡으면 풀려요. 그러나 함부로 자르지 마세요. 분별력을 가지세요. 실수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과 성령님을 사모하는 집회와 세미나를 자주 열어라. 그래서 자꾸 과도 수정을 해라. 인간적이 되갈 때, 세상적이 되갈 때, 신학적이 되갈 때 자꾸 나의 입장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성령 사역의 특징은 거룩과 순결이에요. 결국 거룩과 순결로 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탄식으로 내 안에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겸손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사역, 땀이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기도 사역을 한 마디로 말하면 능력 사역이에요. 능력의 원천은 기도예요. 능력의 원천은 성령님이에요. 능력의 원천은 사탄을 발로 밟는 거예요. 모든 능력은 기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탄은 보따리 싸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모여서 오늘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사탄이 보따리를 싸요. 그런데 떠난 것은 아니예요. 보따리를 싸고 있을 뿐이에요. 기도가 시작되면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고의 공격은 기도 못하게 하는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해요. 기도하지 말고 전도해라, 기도하지 말고 설교해라, 기도하지 말고 부흥해라, 가짜 부흥해라. 사람은 마귀가 많이 보낼 수도 있어요. 영국에 한 어떤 교회가 목사님 교회가 부흥한다죠? 네, 저희 교회가 부흥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불었습니까? 교인의 반이 줄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영적이 아닌 사람은 떠나는 거예요. 못 견뎌요. 줄어들어요. 알맹이만 남아요. 거기서부터 다시 불어나는 게 부흥이에요. 껍데기를 벗기세요. 가짜에 혼돈하지 마세요. 거품에 속지 마세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행전적 기도가 같이 써요. 예수님의 기도는 은밀한 기도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갓으시리라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도는 소리 지르고 하는 기도예요, 손들고 하는 기도예요. 방언하며 찬양하며 하는 기도예요. 대 주재시여! 합심해서,,나는 교회에 합심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방언하며 찬양하며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의 구조예요. 민족과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한 만큼 신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 보면 자기를 위해 기도해요. 첫째는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 제 새끼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조금 더 깊어지면 그 때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 보통 사람이 하는 것 아니예요. 기도해서 자기를 벗어난다는 것이 키예요. 나와 상관없는 민족, 나와 상관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세계를 품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까지 가야 돼요. 내 가족, 내 민족이 아니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구요.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의 사람, 그런 중보 기도의 사람을 우리 교인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여기까지 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라. 기도는 혼자 못해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구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 했

죠? 좋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워요. 좋아도 데리고 가라. 한 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은 우리는 거품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유명세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 학위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소리는 공허합니다. 소리는 높지만 내 영이 공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공허한 영혼에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목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용에는 상처와 갈등이 많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숨은 비밀한 죄들이 많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목사는 가장 위선자들이 많은 확률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설교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실 문제는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교회 문제에 전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장로도 아닙니다. 교인들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 자신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목사의 권위를 얼마나 잘 못 사용한 적이 많았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죽이고 파괴하고 묶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풀어주시옵소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제일 급한 기도예요. 나를 죽이고 나를 위선자로 만들고 목사의 권위를 잘 못 쓰게 만들고 남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시비하게 하고 내 안에 섭섭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마귀에게 말려든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세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쓴 뿌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기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내 가슴을 찢어주시고 나를 부셔주시고 나를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며! 나를 불태워주시옵소서 이 밤 축제가 단순히 한 번 오는 축제가 아니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목회의 분수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걱정했던 아버지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탄의 공격을 사람의 공격으로 잘 못 알고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배후에 어두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성령 세례가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목회를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문제는 교인이 아니고 제 자신이었습니다. 문제는 장로님이 아니고 제 자신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마귀의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오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세력이 오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악령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나를 속이는 자들을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간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적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설교의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설교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그동안 너무 건성건성 목회를 하였나이다. 무책임하게

하게 목회하였나이다. 교회를 속였습니다. 나 자신을 속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위선에서 내가 벗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나를 위하여 등록금을 내 주었고 비행기 표도 사주었고 교회는 나를 위하여 이번에 아버지 기도도 하고 있지만 주여 우리가 변하지 않고 돌아간다면 어찌 이 무서운 비극입니까? 주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상처와 열등감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방어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목사 처음 될 때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이 우리에게 기름부음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 목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목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 떼들이 병들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이 위장병에 걸리고 간 병에 걸리고 목사님들이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목사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병들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의 위장병이 다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정신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 교회가 망해가고 있나이다. 한국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샅꾼 목자였습니다. 주여 나는 샅꾼 목자였습니다. 나는 위선자였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대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의 경험을 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영을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들을 위로해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에 지쳐 있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샅꾼 목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위선자였던 것도 고백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목회자님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지쳐 있고 용기를 잃어 버렸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찢기고 상해오고 당해서 일어날 기력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을 보내 주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하게해주시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기름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것처럼 주여 여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의 머리위에 그 귀하신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 처음 될 때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 처음 믿었던 때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첫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저의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회복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